

롯데, 대두잉크 전단지 사용 환경경영

롯데백화점, 고객 체험형 환경가치 경영 가동 ... 친환경 인테리어 강조

백화점이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춘 고객 체험형 환경가치 경영을 본격 가동하고 나선 가운데 콩기름으로 인쇄한 백화점 전단이 등장했다.

롯데백화점은 환경가치 경영의 일환으로 석유 기름 대신 인체에 무해한 식물성 콩기름 잉크로 인쇄한 전단을 배포하고 있다고 5월18일 발표했다.

롯데백화점은 “미국 대두유회로부터 콩기름 인증 마크(Soyseal)를 획득한 콩기름 잉크를 사용해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품정보만을 주던 전단에 매주 최열 환경재단 이사의 환경에세이를 실어 생활 속의 환경정보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상품권 판매소는 <품격과 자연(Noble & Natural)>이라는 이미지의 친환경 공간으로 꾸미고 있다.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100% 천연항균물질을 분사하는 피톤치드 휘산기를 비치해 삼림욕 효과를 냈으며 영업 시간 동안 다양한 새의 울음소리를 들려주는 등 자연의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상품권 판매소 직원 유니폼도 천연염색제품으로 교체하고, 안내 벨은 천연기념물 조류 소리로 전환할 계획이며 9월 경에는 내부 인테리어 자체를 친환경 공법으로 전면 리뉴얼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4/05/19>